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론, 세션 9, 체계학, 선재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9번째 세션, 체계학, 선재론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말씀과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실제 체계학, 교부 그리스도론,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론으로
 옮겨가면서 광범위하게는 아니지만 충분히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성경 본문의 해석에 기초한 체계적 요약이나 적어도 해설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범주를 한 번 더 요약하면, 선재, 예수의
 인간성의 존재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지만, 영원한 아들의 삶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결코 시작이 없었습니다. 성육신은 영원한 아들이 자신을
 인간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몸과 영혼으로 취하신 기적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는 신-인간이 됩니다. 동정녀
 탄생은 우리 주님의 동정녀 잉태라고 더 정확하게 표현되는데, 그의
 잉태는 그의 어머니였던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성령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예수에게는 인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가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칼케돈
 정의에서 말했듯이요. 그의 인간성은 그가 진정한 인간이었으며, 그의
 인간성에 관해서는 우리와 동일한 본질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진정한 신이며, 그의 신성에 관해서는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지녔습니다

그는 진정한 인간이 되었고, 그의 인간성에 관하여 우리와 동일한 본질을 지니셨습니다. 그는 네스토리우스주의가 가르친 것처럼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고, 단일 신론 이나 유티케스주의가 가르친 것처럼 두 사람의 혼합물, 즉 신도 사람도 아닌 합성체도 아닙니다. 두 국가의 교리는 또한 주님의 뜻에 도달할 것이고, 그것이 1세기에 지상에 계셨던 예수와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신-인간이지만, 그는 두 개의 연대기적 단계 또는 상태 또는 조건, 두 개의 연대기적 단계와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거쳤습니다. 굴욕의 상태는 그의 죽음과 매장으로 끝났고, 그의 승영의 상태는 그의 부활로 시작하여 그의 재림으로 절정에 달했으며, 그때 그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재로 시작합니다. 선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인간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의 영원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명칭이 아닐 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영원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을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들, 말씀, 빛이시지만, 그는 인간이 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선재입니다. 아들의 선재에 대한 성경적 증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다루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령의 선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옳은가? 수업 시간에 이 질문을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그렇다고 말했고,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성부와 성령도 성자와 함께 영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존하며, 그것은 사실입니다. 신격의 세 인격은 모두 영원하지만, 세 인격 모두가 선재한 것은 아닙니다. 선재한 것은 후속적인 존재를 의미하며, 오직 성자만이 성육신 했습니다 .

아버지와 성령은 항상 동일한 존재이며, 아들은 성육신 이전의 아들이어서 성육신을 통해 영원히 성육신한 아들이 되는 존재 양식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재는 그리스도론적 범주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나 아들과 관련이 없지만, 저는 매우 명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고, 한 분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세 영원한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분은 결코 분리되지 않지만 서로 구별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격을 구별하고, 혼동시키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서로 내주하고 있고, 저는 지금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으므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들의 선재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들의 선재성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신약이 그의 선재에 대해 노골적으로 가르치고, 그에게 창조와 같은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창조 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이므로, 분명히 그는 사람이 되기 전에 존재했지만, 첫 번째 증거는 구약에서 성육신 이전의 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구약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인간의 감각, 특히 시각에 자신을 나타낸다. 이것을 테오파니라고 하는데, 특히 눈에 보이고, 때로는 다른 감각에도 나타나지만, 특히 보이지 않는 신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다. 어떤 테오파니는 크리스트오파니이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해석학적 문제가 있고,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신현이 그리스도 현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신약성서가 구약성서 신현을 그리스도 현현, 즉 아들의 출현, 성육신 이전의 출현이라고 부르는 곳은 그리스도 현현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성육신 이전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부터 시작해 봅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나중에 이 강의 시리즈에서 성육신에 대해 다룰 때 요한복음 서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놀라운 책입니다. 공관복음과는 다른 문학적, 신학적 걸작이며, 공관복음과 보완적이며, 아마도 우리는 공관복음보다 더 깊고 더 신학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관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의 지상 사역에 대한 대다수의 반응을 요약한 후, 한 독일 학자는 복음서를 긴 서문과 함께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고, 요한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실이 있습니다. 13장부터 예수가 세상에 문을 닫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만 있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준비와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긴 서론이 있는 죽음과 부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의 죽음과 부활 전 12장까지 중간으로 나뉘 다음, 13장에서 21장까지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준비와 가르침, 행위 자체 등입니다.

요한은 20장 30절과 31절에서 그의 복음서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다른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다른 많은 표적들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에 대한 요한의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 표적들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12:37을 20:30, 31과 평행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2:37, 정말, 물론 반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20:30, 31, 목적 진술을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있는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에 대한 이 요약된 응답과 평행하게 합니다.

그가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세상, 특히 유대인, 유대 민족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20:30, 31은 표적과 믿음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반영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목적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표적과 설교를 하여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지만, 슬프게도 처음 12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반응은 이런 식으로 요약됩니다.

그가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증거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성육신한 아들의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이사야 53장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는가, 우리에게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는가, 그리고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칠까 두려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우 관심을 가진 구절은 41절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영광을 보고 그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요한이 카이아즘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인 병렬 구조는 A, B, A, B 또는 A, B, C, A, B, C의 패턴을 따릅니다. 원하는 만큼 많은 구성원을 가질 수 있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패턴은 A, B, C, D, A, B, C, D로 반복됩니다. 역 평행성 또는 카이아즘은 두 번째 멤버를 역전하므로 A, B, C, C, B, A 또는 이 경우 A, B, B, A입니다. A는 38절의 이사야 53장 인용문입니다. B는 40절의 이사야 6장 인용문입니다. B 프라임은 41a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영광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곳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바로 이사야 6장을 인용한 곳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인용한 것, 이사야 6장에서

인용한 것, 이사야가 그의 영광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하는 것, 이사야 6장, 그에 관해 말한 것도 이사야 6장과 관련이 있지만, 이사야 53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A, 이사야 53장, B, 이사야 6장, B prime, 이사야 6장, A prime, 이사야 53장.

이 모든 것은 이 맥락에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그의 영광을 보고 그에 대해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4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권위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ESV가 정확히 옳다고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그의 영광을 보고 그에 관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통치자들이 그를 믿었고, 그 당시에 예수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그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초기 형태의 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영광을 본 사람을 일부 통치자들이 믿었던 예수와 동일시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6장을 살펴봅니다. 길을 잃었다면,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성육신한 아들의 선재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웃시야 왕이 죽은 해에 나는 주께서 높고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위에는 세라핌이 서 있었습니다. 각각 여섯 개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두 명으로 그는 얼굴을 가렸고, 두 명으로 그는 발을 가렸고, 두 명으로 그는 날았다. 그리고 한 명은 다른 명을 불러서 말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야훼, 만군의 사바오트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문지방의 기초가 부르는 자의 음성에 흔들리고, 집은 연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나에게 화가 있다. 나는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다. 내 눈이 왕을 보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야훼, 만군의 주.

세라핌이 노래한 영광은 야훼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맥락에서 야훼가 육신 이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를 육신 이전의 단어, 빛, 아들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그를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 주님의 인성은 1세기에 베들레헴의 동정녀의 태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나에게, 심지어 선한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선재 인간성에 대한 이상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하지만 성육신의 인격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들입니다. 인격의 연속성은 예수의 인간성에 의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격의 연속성은 아들의 정체성에 의해 정확히 제공됩니다.

그는 성육신 이전의 아들로, 하늘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하고 동등했으며, 성육신 이전의 아들은 성육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자기에게 데려가지 않으며, 하나님은 와서 사람을 강력하거나 독특하게 채우지 않습니다.

아들은 인간 본성, 즉 인간을 구성하는 것, 즉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을 자신에게 취합니다. 그는 잉태될 때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의 인간성은 마리아의 자궁에서 잉태되는데, 마리아의 자궁에서 그의 신성한 본성과 결합하지 않고는 인간성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격성, 아들, 성육신 전, 성육신.

성자의 성육신 전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선재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신성한 인간이 되기 전에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신조에서 말하듯이,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신인이 되기 전에 신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마태복음 23장과 비슷한데, 예수가 유대인 지도자들을 혹평하는 곳입니다. 왜 그는 그들을 그렇게

엄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왜 그는 그들을 축복하는 것일까요? 그는 그들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논쟁적인 신학에 관여합니다. 그는 그들의 깃털을 흔들고, 그들과 마주합니다.

오,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그에게 쉬운 방법이 아니었어요. 쉬운 방법은 그들의 계획, 그들의 계획에 따라가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농담이에요? 그는 그들을 소외시키죠.

그는 그들을 자극합니다. 그는 토요일에 의도적으로 치유하고 좌우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함으로써 그들의 주의를 크게 끌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특히 마음속으로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항상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기 전 잠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방식으로 비난하고 그들을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증가했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많은 제사장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 그가 거듭거듭 반대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결국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의 논쟁적 신학, 그의 설명,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들의 율법에 대한 오해에 도전하고,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을 정죄한 것. 하나님은 그들 중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네요. 요한복음 8장, 그는 폭발하고 있어요. 오, 세상에, 너무 강해서 통역가들이 그 중 일부를 다룰 수 없어요.

이미 2장부터 시작하여, 텍스트 변형에 따라 거의 100번, 요한은 99번 또는 100번이나 믿는다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그 중 소수의 경우에 그는

편파적, 거짓 또는 불충분한 믿음에 대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저는 불충분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다른 불충분함을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8장 30절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할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습니다. 이제, 요한의 거짓된 믿음에 대한 거짓 교리를 이해하는 방법은 어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그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절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맞죠? 하지만 31절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는 그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일반적인 해석학은 30을 31로 따르라고 말하고, 그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럴 것 같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제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와, 와, 와, 잠깐만요, 타임아웃.

자유롭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에게도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들이 로마인을 잊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오, 세상에, 예수님은 그냥 그들이 그것을 가지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지만, 만약 여러분이 39절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그가 하는 일, 그가 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대신, 당신은 거짓말쟁이이고 살인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의 손가락을 전기 소켓에 꽂습니다. 그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들을

자극하고, 만들고, 그가 누구인지, 그의 기적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의 메시지로 그들을 대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가져오는 그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인자입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그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증오는 그의 십자가형에서 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와. 44절 이하. 하지만 내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45절, 당신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에 너무 집착해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 누가 제 죄를 확신시켜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중 누구도 적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확신시켜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그들은 정말 화를 냅니다. 그들은 그를 사마리아인,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합니다.

그는 자신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오해합니다. 오해는 요한 복음의 큰 부분입니다. 그가 죄에 대한 그의 주요 교리가 불신이며, 그 중 일부는 오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아버지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당신은 나를 모욕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

56절. 당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그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그의 아들들이지, 그렇지?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그의 아들이 아니야.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악마의 아들들이고, 그들은 그 행동을 따라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게 되어 기뻐했지.

그는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돌을 집어서 그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자신은 그저 자기 자신을 때리고 성전에서 나갔습니다. 절반은 자신을 숨기고, 인간적 책임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문제의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갔고,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DA 카슨의 놀라운 책,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책임, 성경적 관점과 긴장*. 카슨은 요한 복음에서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어했습니다.

출판사들은 그 전치사 구를 포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책이 팔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Divine Sovereignty, Human Responsibility, Biblical Perspectives, and Tension*은 Carson의 책들이 종종 해왔던 일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진실을 잘 표현해 주었지만, 제가 그것을 잘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말한다, 만약 우리가 신의 아들의 성육신이 주권, 책임, 딜레마, 긴장, 모순, 역설, 신비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틀렸다. 그것은 아들은 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악화시킨다. 5장, 그는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처럼 , 아들도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게 신입니다. 오, 하지만 그는 또한 사람입니다.

4장에서 그는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는, 칼빈이 올바르게 말했듯이,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그저 인간일 뿐이 아니라, 거기 있는 신인이었습니다. 그의 인간성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온전한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신인(God-man)에게 속한 것 외에는 다른 인간성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피곤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와 네 번째 복음서가 예수의 길과 말씀과 표적에 대해 말하더라도 신성한 주권, 인간의 책임, 긴장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신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무언가를 하러 가서 곤경에 처할 때가 되었을 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정해진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인간적 책임을 행사해야 할 때는 7:1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돌아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돌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신이 주권자라면, 우리는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고속도로 한가운데로 걸어나갈 수 있어? 그걸 신을 시험하는 거라고 해. 트랙터 트레일러에 치여 죽는 거야. 어리석은 짓이야.

예수는 신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 에 조율되고 순종했다면 , 나중에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나중에 논쟁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포기한 것은 그것들의 독립적인 사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 번이고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한 번이고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의 매일을 아버지께 굴복했고, 아버지의 뜻에서 그 권능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때때로 신성한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일부 존경받고 옳은 기독교 교사들, 특히 철학자들조차도 지지하고 있는 변형된 실천적 케노시스입니다.

스티브 윌렘이 그들에게 한 대답을 보세요. 그들이 틀렸다는 그의 친절하고 확고한 대답입니다. 다른 때는 아들이 신성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신인으로서 응답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사람은 광야에서 악마에게 왕국이 오게 하라고 폭파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세 번 인용하여 악한 자를 신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두 가지 큰 신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일체와 하나됨과 그리스도의 인격의 두 본성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께서 출애굽기 3:14의 위대한 '나는'이라는 진술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 복음 연구인 요한 학자들의 합의는 이제 그가 이사야 후반부의 '나는'이라는 진술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론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주님이고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6절, 저는 이 구절의 일부만 읽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고 다른 이는 없습니다. 저는 빛을 형성하고 어둠을 창조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이다. 18절, 나는 주이다. 나는 진실을 말한다. 나는 옳은 것을 선포한다.

22절, 나에게로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사람들에게 이런 호소가 많이 나옵니다.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의 호소, 아버지의 호소,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도 그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에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이사야 45:22, 땅 끝까지 다.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자신으로, 나는 내 입으로 맹세하노니, 돌아오지 아니할 말이 의로움으로 나갔다. 나에게,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무릎이 꿇으리라. 나에게, 생략부호로, 모든 혀가 충성을 맹세하리라는 것을 함축한다.

익숙한 말이라면 그럴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것을 인용했고,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간성, 특히 두 가지 상태에 대해 논의할 때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는, 말하자면, 이사야의 예언의 '나는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존재한다. 그는 그 진술을 한 사람입니다.

즉, 그는 성육신 전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진술과 출현, 즉 크리스토파니아는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자체도 그의 선재성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1-3,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이분은 14절에서 육신이 되어, 참된 인간성을 취하시고, 인간이 되셨으며, 육신이 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즉, 그는 육신이 되기 전에 존재하셨습니다. 우리는 9절과 10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빛은 세상에 오기 전에 존재하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무지와 죄입니다. 그리고 15절은 명백합니다. 요한은 그에 대해 증거하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독일 신약학자가 말했듯이, 어린아이가 걸을 수 있는 강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리스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그저 기뻐하세요.

그들은 이것 읽을 수 있어. 그들은 이것 읽을 수 있어.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아.

Acts, John, 정말 간단해요. 훌륭해요.

하지만 같은 학자는 존이 어린아이가 걸을 수 있고 코끼리가 헤엄칠 수 있는 강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미는 깊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횡설수설처럼 들리지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에 대해 증거합니다. 내가 번역하고 외쳐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말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이 나보다 먼저 오셨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오셨습니다. 뭐라고요? 사실 ESV는 그 중간 관용어법을 잘 이해합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그는 순위에서 나를 능가했습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내 뒤에 오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인간의 계산에 따르면 예수보다 6개월 더 많았습니다. 아, 아들은 요한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구자인 존은 6개월 후에 나보다 뒤에 오는 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유대인 관습에 따라 30세에 지상 사역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존도 6개월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고, 시간적으로 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나를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존은 약간 비스듬하고, 여기에는 약간의 코끼리 물이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선재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 사람보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아들로 계시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선지자로 받아들여진 것이 저에게는 꽤 놀랍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유언서 사이에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입니까? 영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 이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나중에, 아마도 10장 마지막에, 우리는 요한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는 표적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이 사람, 예수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존은 표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담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농담이 아닙니다. 존이 표징을 보이지 않게 한 것은 신의 지혜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표적을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2세기 요한 세례자 종파, 즉 변칙적인 컬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을 따랐습니다. 세상에.

그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이미 1장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3장, 그는 증가해야 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때 나는 감소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그를 따라가세요. 세상에.

그러니까, 존의 잘못이 아니었고, 신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존이 기적을 행했다면 상상해 보세요. 세례자 요한 컬트가 도처에 널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표징이 없는 공인도 없이 어떻게 믿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는데, 당신이 그의 말을 들었다면 당신도 그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처럼 이상한 식단을 차려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불처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유산에도 감명받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이 나무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요한은 믿을 수 없습니다.

신약성서는 또한 하느님의 아들의 선재에 대해 가르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위대한 그리스도론적 구절인 빌립보서 2장에서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자주 다시 살펴볼 것이지만, 한 번만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두 상태 교리, 굴욕의 상태, 승영의 상태에 대한 훌륭한 기술 고전 텍스트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빌립보서 2장 6절, 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너희 가운데 두라. 이 위대한 그리스도론적 구절은 모범적인 구절이다. 이 맥락에서 그 주된 목적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4장에서 교회의 두 주요 여성 일꾼이 불화했다는 것을 압니다. 1장에서 요한은 이미 연합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몇 구절 전에 이기적인 야망과 허영심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동참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하신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특히 굴욕의 상태에서, 그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보 신자들과 모든 택함받은 자들을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신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믿으셔도 좋지만, 우리의 이익도 돌보셨기 때문에 그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이에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바와 같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의 형상, *morphe doula*, *doulos*에서 유래한 *theos* 에서 유래 한 단어와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지 않는 한, 하나님의 형상, *morphe that*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언어학자들이 패러다임적 관계라고 부르는 것에 이 두 구절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신 분이 그 모습 그대로를 취하셨고, 두 경우 모두 도케타주의, 모습, 현실이 아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 노예의 내면적 현실을 반영하는 외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노예가 되시나요? 이것은 어떤 종류의 종교입니까? 이것은 은혜 종교이며, 세상에,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이것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돌보지 않았고, 바울이 4장에서 복음에서 핵심 여성과 그와 함께 일한 일꾼으로 그들을 칭찬했지만, 그들은 온 교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제시함으로써, 아들의 굴욕이나 굴욕을 제시함으로써, 그가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했음을 제시함으로써, 무엇보다도 먼저, 약 3번,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서, 종의 형상을 취함으로써, 그들을 낮추었습니다. 즉, 그는 선재했습니다.

콜로새서 1장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위대한 그리스도론적 구절이다. 나는 그것들을 평가하고 어느 것이 가장 위대한지 말할 수 없다. 그것들은 모두 훌륭하다.

그들은 각자가 있고, 각자의 맥락에 내재되어 있으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사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찬송가로서 이전에 존재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맥락에 아름답게 들어맞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아들의 선재성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영원성을 증명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누가 선재합니까?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암시하는데, 그것이 아직 우리의 요점이 아니긴 하지만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신약성서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져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알려진 컬트의 구성원들은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워치타워 본부의 지도자들로, 그들의 나쁜 번역으로,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나쁜 번역은 여전히 그의 신을 가르칩니다. 특히 히브리서 1장을 근거로, 사람들은 와서 마지못해, 힘겹게 투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게 단어인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들의 번역과 가르침에서 그에게 불리한 점이 두 가지 있었는데, 성경이 그의 신을 매우 강력하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결함이 있고 그리스도를 기증하는 번역을 사용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의 은혜를 위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번역자들의 심판을 상상할 수 있나요? 와, 그들에게. 골로새서 1장, 15장, 16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창조물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대리인이며 교회를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또한 그것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로서, 그는 창조자이며,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의 재창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골로새서 1:15).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모든 창조물의 만아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은 그를 위해 또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어머, 성경의 첫 번째를 떠올리게 하네요.

창세기 1장 1절은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이 위대한 그리스도론적 신약성경 구절들을 뒷받침합니다. 그분에 의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세 번째 범주를 생각해 낼 수 있나요?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들, 그리고 천사의 영역은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언급됩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 그리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아들이, 실례합니다만, 창조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나사렛 예수가 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는 선재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끝의 두 끝에서, 마지막 끝은 아니지만, 끝을 향해 있습니다. 시작과 끝 가까이에서, 일종의 포함, 포함으로, 제 학생들이 책받침이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1, 2절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또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이고, 그는 시작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그에게 적절한 칭호이고 그것은 신성한 칭호입니다. 우리는 이미 2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버지가 첫 번째 사람인 것은 요한과 바울과 히브리서 저자가 아들의 행위를 전달하기 위해 전치사, ~를 통하여, ~에 의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르쳐진 것입니다. 아들은 창조에서 아버지의 행위자입니다.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성령도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마도 이레네우스가 아들과 성령을 하나님의 두 손이라고 부른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의미한 바입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선재했다. 110, 시편을 인용하면서, 오 주님, 당신은 주님, 그것은 놀랍다. 9절에서, 아들은 신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즉 아들, 하나님이 있는 인간. 10절에서 그는 하나님이다. 미안합니다, 8절. 당신의 왕좌, 오 하나님.

아들은 8절에서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9절에서 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가장 높은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불리며, 10절에서는 창조주 주님이라고 불립니다. 주님, 당신은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은 당신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늘과 땅을 다시 보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당신이 맞힌 대로 창세기 1:1을 되돌아보며 시편 102편을 인용합니다.

주님, 당신은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가 선재했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창조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교회는 올바르게 고백했습니다. 오,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교회의 예배가 교회의 이해보다 앞선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아주 초기의 기독교 작가들은 그들이 모여서 예수에게 찬송가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기억하세요, 아리우스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그의 신성을 부인했을 때 우리가 그를 경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이해보다 앞섰습니다.

그들은 그를 신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 그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만찬에서 영적으로 그와 합해졌습니다. 이 모든 면에서 교회의 실행은 교회의 완전한 이해보다 앞섰습니다. 완전한 이해? 우리는 성육신을 완전히 이해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교부들이 그리스도의 인격, 그의 선재에 관한 정확한 교리를 우리에게 물려준 그 공의회에서 함께,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그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9번째 세션, 체계학, 선재입니다.